

최저 연 6.9%
미니스통장처럼 편리한 직장인 신용대출!
Ez-Free Loan (이자프리론)
대한생명 문의 1588-6363

1000유로 세대

한달 100여만원 버는 유럽의 고용 불안정 20~30대

밀라노=강경희특파원
일 자리를 만 들어내지 못하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는 내일이 없다. 두 달을 넘긴 프랑스 젊은이들의 반(反)CPE(최초고용계약 조항) 시위에도 희망 없는

내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안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다. 평균 실업률의 2배나 되는 높은 청년실업은 세계적 고민거리다. 더욱 큰 문제는 프랑스에서 보듯이 해법(解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자리 못주는 정치가 나라의 미래 죽인다”

이탈리아 '1000유로 세대'는 한 달을 어떻게 생활하나?

집세
400유로(46만원)

식비
200유로(23만원)

웃값
100유로(11만5000원)

취미생활
(영화, 연극 구경, CD구입, 디스크텍, 짐지 구입)
100유로(11만5000원)

운동
50유로(5만7500원)

인터넷 사용료
40유로(4만6000원)

휴대 전화
50유로(5만7500원)

교통비
30유로(3만4500원)

합계 **970유로**
(1000유로=약 115만원)



‘돌체 비타’는 ‘달콤한 인생’이란 뜻의 이탈리아어다.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돌체 비타’를 노래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다. 그들은 자신을 ‘1000유로 세대’라 부른다. ‘1000유로 세대’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직업을 전전하며 한 달 1000유로(약 115만원)도 안 되는 소득에 의지해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말한다. 1000유로(1210달러)는 이탈리아 1인당 평균 소득(2만6120달러·2005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1인소득 2만6000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입

안토니오 인코르바이아(Antonio Incorvaia·31)와 알레산드로 리마사(Alessandro Rimassa·30)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들은 자신과 친구들의 경험을 소재로 ‘1000유로 세대’라는 인터넷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은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을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행운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두 청년을 밀라노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1000유로 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밀라노 공대에서 건축을 전공한 엘리트다. 2000년 대학 졸업 후 6년간 그래픽 디자이너, 웹 에디터 등을 거쳐 요즘엔 프리랜서 기자로 일한다. 하지만 월 평균 수입은 750유로(86만원)에 불과하다. 이 수입으로는 독립하기도 힘들어 전직 교사인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됐다. 공동 저자 알레산드로는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대학을 중퇴하고 9년째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그 역시 ‘1000유로 세대’다. 한 달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묻자, 그는 “매달 일정치가 않아서... 무보수로 일한 적도 있고 적을 땀 한 달에 500유로, 많으면 1000유로쯤 본다”고 했다. 이 수입에서 집세로 400유로쯤 내고 나면 600유로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는 물론 취미생활 비용도 최대한 아껴야 한다.

우린 ‘그라운드 제로’ 인생 미래 꿈꿀 자유조차 없어

하지만 이들은 젊은이답게 즐거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알레산드로는 “시간과 품을 들이면 1000유로 수입으로도 얼마든지 알뜰하게 즐길 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수요일에만 영화관에 간다. 8유로인 표 값이 5유로로 할인되기 때문. 한끼에 20~40유로(약 2만3000원~4만6000원) 드는 외식은 생각하기 힘든 사치이지만,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술값과 음식값을 할인하는 해

피어워 시간을 이용해 5유로(5800원)짜리 외식을 즐긴다. 친구들과는 집으로 초대해 직접 준비한 음식과 값싼 와인으로 파티도 연다. 알레산드로는 다음달 런던 여행도 계획 중이다.

프리랜서가 아닌 다른 직종의 젊은이들은 사정이 낫지 않을까?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너무나 많은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나와 함께 건축을 전공한 대학 동기생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했다. 첫 2년 동안은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경험을 얻는 것에 만족하면서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 그 친구는 경력 인정 받고 해외 근무까지 다녀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서도 수없이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최근 밀라노 근교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6개월짜리 단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월급이 1000유로가 안 된다. 6개월 지나면 또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

빠듯하지만 즐겁건 즐겨 알뜰하게 외식·여행까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이유에 대해 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탈리아 경제가 침체됐지만 어떤 획기적 개혁이나 정책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에는 공채 등 실력 위주로 사람을 뽑는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능력주의 사회)가 정착돼 있지 못하다. 든든한 백이 있는 젊은이라면 일자리 구하기가 쉽겠지만 보통의 젊은이는 경쟁력을 쌓아도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는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 인생이다”라고 말했다. 자신과 같은 ‘1000유로 세대’가 25~35세 젊은이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 9~10일 총선이 실시된 이탈리아에서 5년간 집권한 중도 우파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경제실패로 물러나고 중도 좌파의 로마노 프로디 전 총리가 승리했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어느 당도 청년 고용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알레산드로는 이런 정치현실에 대해 “35세 미만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일 자리를 갖지 못하고, 미래도 구상하지 못한다는 건 젊은 세대를 죽이는 일이다. 이탈리아의 미래를 죽이는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안토니오와 알레산드로는 둘 다 여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엄두도 못 낸다. 부모 세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진 뒤 결혼하고 집 사고 은행에 저축도 했지만, 이들에게는 그 평범한 삶이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 그것은 젊은이들에게서 미래를 꿈꿀 자유조차 앗아가는 사회적 비극이었다.

(블로그)khkang.chosun.com

작가에게 들어본 이탈리아 청년실업



‘1000유로 세대’ 작가 한 달에 1000유로(약 115만원)쯤 벌면서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자신과 동료들의 얘기를 ‘1000유로 세대’란 인터넷 소설로 쓴 안토니오(왼쪽)와 알레산드로

기자수첩



황대진·정치부 (블로그)jdhwang.chosun.com

‘말로만 경선’

요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당의 경선 이야기만 나오면 허탈한 표정을 짓곤 한다. 경선은 선거에 나갈 후보를 당원 투표로 뽑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깨끗하고 투명한 경선을 다짐했다. 지난 2월 26일 여야 4당은 당내 경선 관리를 자신들이 할 경우 부정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중앙선거위에 위탁하겠다고 합의까지 했다. 열린우리당 83개 선거구, 한나라당 19개 선거구 등 총 117곳의 경선을 선거위에 위탁했다.

이에 선거위는 예산을 들여 안내 책자를 만들고, 각 당의 담당자를 불러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지금 이 약속을 지키는 정당은 거의 없다.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12일 현재 경선 관리를 위탁했던 117개 선거구 중 108곳에서 경선이 없었던 일로 됐다고 한다. 선거위 관계자는 “해달랄 땐 언제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서울시장 경선도 선거위에 위탁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31일 취소했다. 83곳 중 6곳만 남았다. 대신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지사 후보의 절반 이상을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고르라며 장·차관 출신 등을 영입해 경선 없이 ‘전략 공천’했다. 열린우리당은 그간 당원은 물론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국민경선 시스템을 정치개혁의 상징인 양 홍보해 왔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선 전략 공천을 택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경선에 나서겠다는 후보가 1명밖에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권선택 의원이 당 지도부가 대권시장 경선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탈당하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경선이 후보 공천의 최상책이란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껏 ‘경선원칙’을 강조해온 열린우리당이 슬그머니 이를 포기하면서 “후보가 없다”는 상황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군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volvocars.co.kr

스포츠 에스테이트 VOLVO V50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스포츠 에스테이트 VOLVO V50

▶4월 특별행사: V50을 계약하시는 분들께 출시 기념 액세서리를 정척해 드립니다.
· 각 전시장 시승행사 참여하시는 분들께 VOLVO의 고급 다기능 스포츠백을 드립니다.

VOLVO V50

Volvo. for life

VOLVO 전시장

서울: 대치 060-207-7900 압구정 1577-6080 한남 02-798-0101 인천: 032-464-0027 수원: 031-2166-777 분당: 060-7070-804
천안: 041-558-6080 대전: 042-628-6080 대구: 053-741-0004 부산: 051-611-8400 마산: 055-242-0089 광주: 062-352-6080

직업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즐거워

소설 '1000유로 세대' 무슨 내용

안토니오와 알레산드로가 자신들의 홈페이지(www.generazione1000.com)에 띄운 자전적 인터넷 소설 ‘1000유로 세대’는 지금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다. 오는 5월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밀라노에서 대학을 졸업한 27세의 클라우디오. 동갑내기 친구 로셀라, 알레시오, 마테오와 함께 아파트를 세 내서 산다. 이 중 마테오만 학생이고, 나머지 셋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1000유로 세대’다. 소설은 이들 젊은이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사고방식을 담았다.

주인공 클라우디오는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다국적 회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일해 왔지만 경력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 한 달에 1000유로를 벌지만 마냥 우울해하지 않고 날개를 다시 펴기 위해 매우 ‘창의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한다. 로셀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하지만 당장의 생계를 위해 베이비시터, 번역일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면서 돈벌이를 한다. 알레시오는 우체국에 안정적 직장을 구했지만 그 역시 한 달 월급은 1000유로다.

직업도 불안정하고 수입도 넉넉지 않은 삶이지만, 소설 속의 젊은이들은 특유의 낙천적 사고를 갖고 있다. 하루하루 지혜를 짜내 알뜰 소비를 하면서 즐거운 삶을 꾸리고 미래도 기다린다.

밀라노=강경희특파원